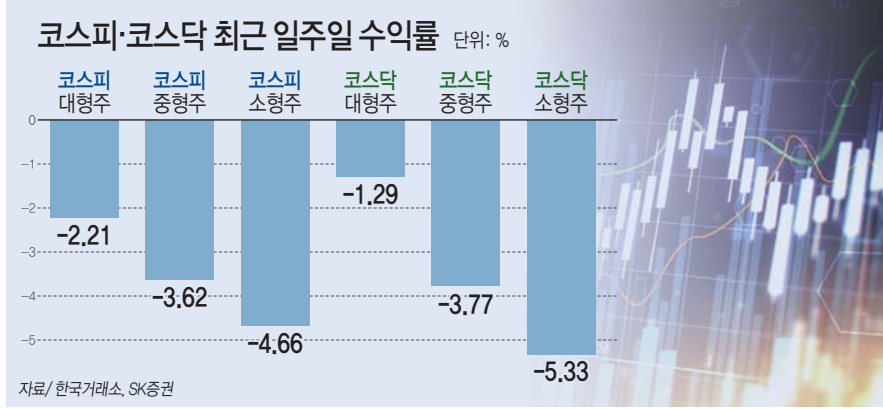


외국인 대신 개미가 주도권, 중·소형주 별들까 주목

조정장세 투자전략은
저금리 기조에 성장주 집중 예상
수출보단 내수, 자본재보단 소비재
중·소형주 재반등 가능성 높아
9월 공매도 재개면 투자심리 제한

외국인이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 개인 투자자를 필두로 넘치는 유동성으로 중·소형주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빠른 순환매 장세 속에 급등에 따른 피로감을 보이는 듯했으나 한동안 안정적인 수익을 보였던 대형주를 넘어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수가 연일 보합권을 맴돌자 위험자산 선호현상이 또 한 번 높아지는 분위기다.

18일 한국거래소와 SK증권에 따르면 전날까지 코스닥 대형주의 최근 일주일 수익률은 -1.29%를 기록했다. 단 기간 상승에 부담을 느낀 코스닥이 약세를 보인 탓이다. 코스닥 중형주는 -3.77%, 소형주는 -5.33%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 대형주의 일주일 수익률은 -2.21%를 기록했다. 중형주와 소형주도 -3.62%, -4.66%로 좋지 않았다. 대형주는 시장에서 시가총액 1~100위 종목을 뜻한다. 중형주는 코스피의 경우 101~300위, 코스닥은 101~400위를 의미한다. 소형주는 그 아래 종목들이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2.49%, 코스닥은 -3.07%를 기록했다. 조정장이 나타나며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선전을 펼친 모습이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이 같은 수치와 반대되는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분간은 중·소형주의 선전이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BBIG7(바이오·배터리·인터넷·게임) 등 성장업종이 코스피시장의 새로운 주도로 떠올랐다"며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의 선호가 성장주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대부분 성장주로 평가되는 종목들은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에 많이 포

진해 있다. 이날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코스피 중형주 구성 비중 상위 3개 업종은 건강관리(12%), 필수소비재(9%), 화학(9%)이다.

코스닥 대형주를 살펴보면 건강관리업종이 32%를 차지하고, IT하드웨어(14%)와 소프트웨어(11%)가 뒤를 잇는다. 이 3개 업종이 전체 구성 종목(26개) 60% 가까이 차지한다. 중형주와 소형주 역시 비슷하다.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비대면) 산업 구조 변화로 건강관리와 헬스케어 관련 기업들의 몸집이 불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자본재, 중간재 업종의 단기간 전망이 어두울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 대형주에 선 은행과 자본재 업종이 7% 수준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가 다시 유행중인 만큼 인적·물적 교류가 이른 시간 안에 회복될 가능성은 작다"며 "제조업 마비현상으로 기업들 투자 의사 결정이 쉽지 않아 글로벌 수요 회복엔 시간이 걸릴 것"이라

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형주의 재반등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그는 "소비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이어지고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 형성으로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선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수출형보다 내수형 산업이, 자본재보단 소비재 관련 사업이 양호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금지 상태인 공매도가 오는 9월 재개되는 만큼 모멘텀을 갖춘 기업들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은 "9월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실제 없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이 재평가받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스톡캡 담당 연구원도 "마땅한 호재가 없음에도 고평가돼 있는 소형주의 경우 공매도 순기능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며 "예정대로 공매도가 시작되면 개인투자자들의 들끓는 투자심리가 급격히 제한될 것"이라고 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OLED 장비개발... 수소전지 등 신사업 확대

IPO 기자간담회
신도기연
독자적 R&D 기술로 시장 선도
중 디스플레이 점유율 확대 주력



18일 현근중 신도기연 영업팀 부장이 상장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박미경 기자

글로벌 OLED장비 개발 선도기업 '신도기연'이 오는 7월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신도기연은 18일 서울 여의도 흥우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의 성장 전략과 앞으로의 비전을 밝혔다.

박웅기 신도기연 대표는 "국내 디스플레이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독자적인 공정기술 연구에 매진해왔고 현재 합착기와 탈포기 업계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상장 후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의 글로벌 고객사를 확대하고 수소전지, 진공 유리 분야 등 관련 기술이 필요한 신사업에 적극 뛰어 들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신도기연은 액정 표시장치(LCD)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후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업이다. 특히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 후공정 단계에서 패널과 각종 부

품을 합착(Laminating)하는 장비와 미세 기포를 제거하는 탈포(Autoclave) 장비가 주력 제품이다.

신도기연은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중국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을 늘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현재 중국의 4대 디스플레이 패널 제조사인 BOE, 티안마(Tianma), 비전옥스(Visionox), CSOT 등에 모두 납품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중국 플렉서블 OLED 시장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현재

1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 디스플레이 패널 업체들의 점유율은 2014년 1%대에서 2019년 10%대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년까지 신규 설비 구축에 18조원 이상 투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합착 및 탈포 핵심기술을 활용해 '수소 연료전지 장비'와 '진공 유리 시장'으로도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수소 연료전지 분야의 경우 수소 이온을 이동시켜 주는 막전극집합체(MEA) 합착 장비를 개발해 납품하고 있고, 진공 유리 제조 장비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두 가지 신규사업 모두 미래 친환경 에너지 사업으로 분류돼 정부 차원의 지원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

신도기연의 총 공모 주식 수는 130만 주로 주당 공모 희망가는 1만4000원에서 1만6000원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최대 208억원을 조달한다. 오는 22~23일 이틀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거쳐 25~26일 일반 청약에 거쳐 7월 중 상장할 예정이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유통주 순매수 상위 종목)

종목명	연초 주가	16일 주가	등락률(%)			순매수 금액
			1개월	3개월	연초	
호텔신라	9만4000	7만4000	-6.92	4.81	-22.28	3095억
신세계	29만2500	22만2000	-4.93	1.60	-24.11	1694억
롯데쇼핑	13만5500	8만4000	-3.66	11.11	-38.01	1505억
이마트	12만5500	11만2500	0.44	5.14	-10.36	1445억
현대백화점	8만5900	6만400	-8.22	-6.08	-29.69	635억

보복소비 온다더니... 유통주 별 들 날은?

'상고하자' 하반기 반등론 우세
'길게 보면 좋아질 일만 남았어'

보복소비를 기대하며 반등을 기대했던 유통주가 주춤하고 있다. 일부 종목이 개인투자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오르며 '저점매수'에 베풀만한 모습이지만 내수 소비가 회복되지 않으며 시원찮은 모습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론 긍정적 시각이 우세하다. 매출액 회복과 신규 모멘텀을 고려하면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을 갖췄다는 평가다.

지난 17일 유가증권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5만89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 5.63% 내려앉았다. 8만5900원에 거래됐던 연초와 비교하면 70% 수준에 그친다. 코스피지수가 연 최저점을 기록했던 지난 3월 19일 가격(6만300원)조차 회복하지 못했다. 같은 기간 46.67% 뛰어오른 코스피 상승률이 무색하다.

다른 유통주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달 들어 신세계(-9.39%), GS리테일(-8.93%), 호텔신라(-6.57%), 롯데쇼핑(-5.62%), 이마트(-0.80%) 등이 내려앉았다. 5종목의 연초대비 평균 하락률은 -20.79%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유통주를 끌어 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형마트가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며 가뜰이나 뜸해진 소비자들이 더 이탈했다는 것.

그래도 개인투자자는 반등을 믿는 모양새다. 이달 들어 전날까지 3095억원 어치의 호텔신라 주식을 사들였다. 신세계(1694억원), 롯데쇼핑(1505억원), 이마트(1445억원), 현대백화점(635억원), GS리테일(429억원) 등 주요 유통주들도 담았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의 믿음에 힘을 실어주는 분석이 나왔다. 상저하고 모습을 보이며 실적 개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주영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유통업종 주가는 하반기엔 서서히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곧 긴급재난금 지급에 따른 변수도 사라지고, 더 나빠질 부분보다는 개선될 여지가 많다"고 했다.

면세점주에 특히 시선이 쏠린다. 현대백화점을 보면 알 수 있듯 면세점 관련 종목은 유통업종 내에서도 가장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도 면세점 이익 회복 시점이 언제가 될지 쉽사리 예측을 꺼리는 분위기다. 하준영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예상보다 길어진 코로나19로 면세점 부문의 회복시점도 6월에서 8~9월로 미뤄질 것"이라고 했다. 백화점은 사업 구조상 면세점 이익 회복 시점이 실적에 직결된다. 주가도 이에 맞춰 반등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그만큼 면세점주의 밸류에이션도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 기저가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는 만큼 저점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송태화 기자

호반건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호반건설은 오는 19일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 A43블록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의 사이버 견본주택을 공개하고 분양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는 지하 1층~지상 35층 7개 동 전용면적 84㎡로 총 766가구다. 이중 균인공제회 회원 물량을 제외한 일반분양 분은 총 414가구

다. 타입 별 가구 수는 ▲84㎡A 57가구 ▲84㎡B 29가구 ▲84㎡C 94가구 ▲84㎡D 32가구 ▲84㎡E 152가구 ▲84㎡F 50가구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으며, 계약금 정액제(1000만 원)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로 소비자의 부담을 낮췄다. 호반써밋 고덕신도시 2차가 들어서는 평택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청약이 가능한 지역이다.

한편 분양일정은 오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월 1일 1순위 청약, 2일 2순위 청약에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7월 8일이며 계약은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간 진행된다. 입주는 2022년 5월 예정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